

겨울 시작된 제주, '블랙아이스' 주의보

<도로 표면에 형성된 얇은 얼음>

제주지역 최근 5년간 사고 114건… 부상 167명
얇은 얼음막 형태… 적설 사고보다 치사율 높아
“눈비 온 다음날 운전 시 감속·안전거리 확보해야”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로에 내린 눈이 녹거나 비가 내린 뒤 밤 사이 다시 얼면서 생겨나는 얇은 빙판인 ‘블랙아이스(도로 살얼음)’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서리·결빙 사고는 총

114건이다. 부상자는 총 167명이고, 사망자는 없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건(이하 부상 26명) ▷2021년 39건(55명) ▷2022년 12건(28명) ▷2023년 27건(27명) ▷2024년 17건(31명)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도내 적설 교통사고(76건)보다도 약 50%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블랙아이스는 마른 노면처

럼 보이지만 얇은 얼음막이 형성돼

운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워 더욱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블랙아이스(서리·결빙)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적설 교통사고보다 3.7배 높게 나타나고, 치사율은 2배에 달했다.

제주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 결빙이 잦은 5·16도로와 1100도로 등 산간도로에서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러한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남로 도남우체국 앞 왕복 각 1개 차로와 고마로 일도주유소 앞 왕복 각 1개 차로, 고산동산 하행차로 등 17개 구간(2개 구간 공

사 예정)에 도로 열선을 설치했다.

양하루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교수는 “눈비가 온 뒤 다음 날 이른 아침이나 그늘진 터널 출입구 등 도로 살얼음이 형성되기 쉬운 조건에서는 반드시 평소보다 20~50% 감속해야 한다”며 “앞 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급 가속, 급제동, 급회전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 중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면 급격한 조작을 삼가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에 걸쳐 부드럽게 밟고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타이어와 전조등, 와이퍼 등 차량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버려지던 준설암, 전복·해삼 터전으로… 도, 지방이항 준설공사 시 발생 암석 마을어장 투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이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준설암)을 마을 어장에 투입해 전복과 해삼 등 해양생물이 부착해 살 수 있는 터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준설공사에서 나온 암석은 대부분 육상으로 운반돼 매립장에 쓰여지거나 버려졌다. 도는 이 암석을 전복·해삼·소라 부착 해양 생물이 살 수 있는 투석 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 연안에서는 갯ぬ음(바다 사막화)과 부영양화, 해양저·어선 활동 증가로 인한 서식지 교란 문제, 과도한 채취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년 전복 등이 부착해 살 수 있는 석재를 구입해 마을어장에 투입하는 등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조성해 왔지만 앞으로는 준설암을 활용하기로 하

면서 예산 절감과 자원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준설암을 투석 자재로 쓰면 평당 약 11만 5000원을 아끼는 등 연간 1500평을 기준으로 약 1억 7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역 반응을 보면 도내 전 어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에서 잠시 쉬어가는 겨울 전객 4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겨울 전객인 고니(천연기념물 201호) 두 마리가 찾아와 휴식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브리핑 “학교 민원대응 부실… 고인 보호 못해”

관련자 ‘경징계’ 요청, 논란 일 듯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생 가족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고인이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절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수준의 처분을 사학법인에 요청하기로 하면서 관리 부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7월부터 약 5개월간 민원 대응 과정, 병가 승인 절차, 업무 배치 및 과중 여부, 국감 제출자료 적정성, 생활지도 민원 처리, 사망 장소 설치 경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아 고인이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민원은 학생 흡연 생활지

도 과정에서 고인이 언어폭력을 했다는 보호자 주장에서 비롯됐으며, 고인은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보호자는 문제 제기를 지속했다.

고인은 민원 진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했으나, 보호자의 방문 지연 등으로 해결이 미뤄지면서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반은 “교장이 보호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고인에게 공유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이첩 후에도 학교는 특이 민원 여부 판단과 필요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인이 3학년 부장, 담임, 과학 교과 등을 동시에 맡아 업무가 과중했고 병가 문의에 대한 관리자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사반은 민원과 업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 내리고, 민원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위서를 허위 기재한 학교 관리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교조 제주지부가 “유족에게 사전 설명 없이 결과 공개가 진행됐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비판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김채현기자

표선도서관 리모델링 착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표선도서관을 새롭게 바꾼다. 기존 열람·자료 중심의 공간에서 틈피해 오픈형으로 디자인된 서가 조성,

공간 재배치, 뉴미디어 라이브러리 등 특화 공간 도입 등을 통해 독서, 휴식,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도는 “최신 도서관 트렌드를 반영해 표선도서관이 개방형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함께합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064-710-3451
064-710-0413
064-717-7144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5일 금요일 을 10월 16일 (8월)

기상정보



구름많음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8°C, 낮 최고기온은 10-13°C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늦은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10%	
20%	성산	10%	
30%	고산	20%	
20%	서귀포	20%	

해들 07:23	달뜰 17:25
해침 17:26	달진 07:39
물때	만조 10:56 22:35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보통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4/17°C

모레 구름많음 9/19°C

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제주여자고등학교 등 8개교이다.

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종학교 나이스(NICE)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주도교육청 접수처(본관 3층 중등교육과)를 방문해 원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합격자 및 배정 학교 발표는 내년 1월 14일이다.

김채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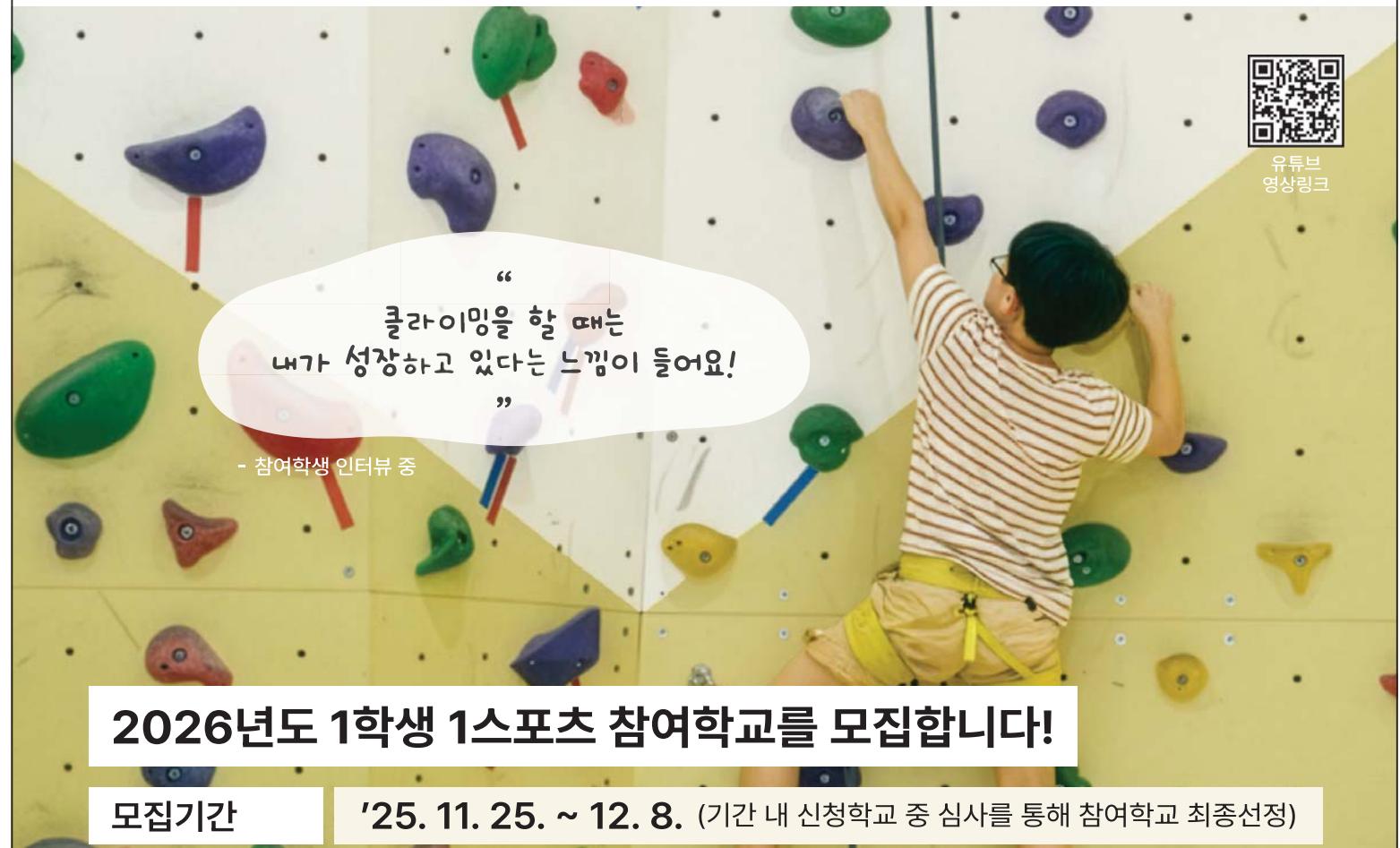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 1학년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

게임보다 재밌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064-710-3451
064-710-0413
064-717-7144